



남원 주생면 옛 활주로 부지에 유채꽃 만개

남원시 주생면의 옛 활주로 부지가 노란 유채꽃 물결로 뒤덮여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0년 1X드론활용센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ha 규모의 대체농지를 마련, 이 부지를 일시적인 유휴지로 두는 대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유채꽃밭 조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유채꽃밭은 주생면 주민들이 시와 한마음으로 협심하여 일궈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민들은 직접 파종에 참여하고 꽃밭을 가꾸며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봄의 싱그러움을 선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폐활주로를 꽃밭으로 바꾼 사례는 충북 제천시의 제천비행장이 대표적으로, 남원시의 유채꽃밭 또한 이러한 유휴부지 재활용 흐름에 발맞추어, 과거의 흔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녹지 중심의 공간재성을 구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사)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동수)가 주최한 '제19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24일 진안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해 동창욱 군의장, 전윤태 도의원, 장지진 진안군케이트볼연합회장, 읍·면 분회장 등 주요 내빈과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경기에 앞서 전년도 우승팀인 마령면분회팀의 우승기 반납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관내 16개 팀, 140명의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걷기와 타격 동작을 통해 전신 근육을 고루 사용하면서 신체 부담이 적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동향대야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마령팀 공동 3위는 진안바이킹과 안천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진안=우태민 기자



부안 동진면, 동진 수미감자 포장·출하 일손돕기

부안군 동진면(면장 최정애)은 영농철을 맞아 지역 대표 특산물인 동진 수미감자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 24일 진행된 우체국 공영홍소평 방송을 통해 판매된 동진 수미감자 주문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27일 동진면 직원들이 참여해 포장 및 송장 작업을 지원했다. 단기간에 집중되는 출하 물량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작업 부담을 덜고 원활한 유통에 힘을 보탤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관리 컨설팅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을 지난 21일까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남원의료원과 연계해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전문과 교육을 제공, 주요 내용으로 △시설 내 감염관리 수준 점검 및 개선 지도 △호흡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및 관리 △기침예절 및 손 위생 심화교육 △환격위생 관리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권·교화로 안전사회 구현

주정민 신임 전주교도소장 취임

27일 제72대 전주교도소장으로 주정민 부이사관이 공식 취임했다. 주정민 소장은 1995년 교정 간부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17년 시기관으로 승진하며 교정 행정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및 총무과장, 포항교도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4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부산교도소장을 지냈다. 이날 취임사에서 주 소장은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교화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정기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전주교도소는 이번 신임 소장 취임을 계기로 수용자 교정·교화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청, 신규·전입 직원 청렴다짐으로 '첫걸음'

반부패·청렴 결의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27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직에 합류한 직원들이 첫걸음부터 청렴과 혁신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식은 △반부패·청렴 선언문 낭독 △청렴·혁신 나무 퍼포먼스 △웹캠키트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 수수 금지,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업 총괄과 최종주행정주사보가 대표로 낭독했다. 특히 청렴·혁신 나무 퍼포먼스는 직원 각자가 청렴 실천 의지를 적은 일사제 카드를 대형 나무 포스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배움의 자세로 매일 한 걸음씩 성장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겼으며, 완성된 포스터는 청사 내에 게시돼 일상 속에서 청렴 의식을 되새기는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달된 웹캠키트는 명함자갑, 공무원증 케이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관련 기념품 등으로 구성된 신규 직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을 돕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 구현'을 목표로 신규직원 청렴다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인 '새만금 뉴웨이브'를 비롯해 '청렴 첫걸음 학교', '청렴 멘토·멘티 제도' 등을 통해 조직 입문 단계부터 청렴 가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양오봉 전북대 총장, 국무총리실 '생명대사' 위촉

지난 24일 청계광장서 열린 천명지킴 발대식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생명대사'로 위촉됐다. 양 총장은 4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천명지킴 발대식'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생명대사로 공식 임명됐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프로젝트의 출발을 일컫는 자리로 마련됐다.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확산하고, 고립과 소외를 겪는 이들에게 연대와 관심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특히 일상 속 인식 개선과 공감 확산을 통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한다. 전북대는 대학 최고 수준의 '행복드림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대학생 자살예방에 가장 모범적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



양 총장은 앞으로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범지역적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청년이나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꼬마셰프의식품연구소'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063-626-1116)는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등록 어린이집의 만 4~5세 어린이 70여명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실에서 '꼬마셰프의 식품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브로콜리를 주제로 영양교육과 요리·체험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색깔, 모양, 냄새 등 식재료의 특성을 직접 관찰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브로콜리의 성장 과정과 영양적 효능을 플립카드 활용으로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브로콜리 감자볼 만들기 등의 요리활동과 브로콜리 거울 만들기 체험을 병행해, 어린이들이 식재료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제일공구마트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관내 제일공구마트(대표 오형섭)를 착한가게 3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제일공구마트는 철물건축 자재를 비롯해 각종 공구와 기계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 업체로, 지역 내에서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고객층을 확보해 온 곳이며, 다양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형섭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봉래 동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오형섭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참여 팸투어 추진

정읍시가 지역 관광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하는 초청 홍보 여행(팸투어)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시 홍보대사이자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인 노미경 여행작가를 비롯해 방송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영화 평론가 등 다양한 콘텐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방문 코스는 신성공사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김명관 고택,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장산 일원 등 정읍의 주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정읍에 머무르며 문화와 역사, 자연을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번 홍보 여행을 통해 관광자원의 이야기화(스토리텔링)와 체류형 콘텐츠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시선을 반영한 콘텐츠 생산으로 관광자원의 재해석을 유도하고 향후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노미경 작가는 정읍 출신으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볼리비아 유니 세크를 알린 공로로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공로 표창장을 받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여행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은 목련회, 제빵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목련회가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전북은행 목련회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사랑의 빵 나눔회에서 2026 도란도란 사랑 나눔 제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련회는 전북은행 여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봉사는 직접 만든 빵을 이웃과 나누며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에는 회원과 자녀 등 60여 명이 참여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반죽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카스터를 완성했다. /오상근기자



부안 백산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부안군 백산면(면장 박선익)은 지난 2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이통결핵검진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백산면사무소와 부안군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를 추진했으며 교육은 진드기 관련 교육과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제시, 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다수 수상

김제시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다수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농업인의 스마트 농업기술과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제시는 라이브커머스 최우수상(바지리농장 박미진), 우수상(온도농장 송현주), 블로그포스팅 우수상(장산농원 양두관), 스마트콘텐츠 우수상(아름의꿈농장 임정미), 장려상(지애의봄향기 합지애), 단체전 최우수상(회장 박광수)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입상했다. /김제=곽태 기자